

News

가계대출 급증한 은행에...금감원 "자본금 늘려라"

매일경제

금감원, 가계대출 크게 늘린 은행에 대해 추가 자본 적립 요구 전망... 정은보 금감원장 "과잉유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기인한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 예정...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

카뱅, 고신용자 신용대출·일반전월세보증금 대출 중단

경향신문

카카오뱅크, 8일부터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 등 신규 대출 중단 예정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차원... 대출 증가속도 고려해 추가 조치 진행 가능성도 시사...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는 완화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신한은행도 대출 문턱 높인다...모집인 전세대출 중단 초읽기

뉴스1

신한은행,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집인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 총액 한도가 없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10월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은행들, 대출 문턱을 높여서라도 대출 중단 사태만은 막겠다는 의지... 연말로 갈수록 금융권 대출절벽 가속화 전망... 대환대출도 중단하는 추세

SC제일은행, 연말 명예퇴직 돌입

조선비즈

SC제일은행, 올해 명예퇴직 돌입... 1970년대생이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등 작년보다 명예퇴직 대상이 대폭 확대된 모습
SC제일은행을 시작으로 여타 주요 시중은행의 명예퇴직 계획도 속속 확정될지 여부 주목 중

역대 최저 자동차보험 손해율...언제까지 이어지나

아시아경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판매 중인 12개 손보사의 손해율은 올 상반기 기준 79.1% 기록... 작년 말 85.7%보다 6.6%p 낮은 수치
다만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은 계속 축적 중... 최근 보험업계가 자동차정비업계와 자동차 정비 시간당 공임비를 4.5%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정비수가 인상 예정

달러보험 규제안 발표, 또 연기... 환손실 리스크 해소 언제쯤?

머니S

금융당국, 달러보험 규제안 발표 시기를 내부적으로 재점검...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 관계자들과 최종 논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 발표한다는 입장
환율 리스크 때문에 달러보험 감독 강화에 나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되 전문투자자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가이드라인 마련

“코스피 불안하다” 계좌 늘어난 증권사 랩어카운트

이코노미스트

7월말 기준 랩어카운트 계약 건수 202만 3,743건... 계약 건수 200만 건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 가입고객은 7월 말 기준 183만 4,328명
올 들어 대다수의 증권사가 다양한 랩어카운트 상품 출시... 가입문턱을 낮춘 것도 계좌 증가의 요인

금락장에 ‘빚투’ 반대매매 쏟아졌다

파이낸셜뉴스

코스피지수 3,000선이 붕괴된 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 규모는 233억원 기록... 9월 28일 이후 총 1,260억원이 강제 청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테이퍼링 축소, 내년 금리 인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악재 겹쳐 국내 증시 급락의 영향이 반대매매 급증의 원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